

국정 과제회의-제28차 노사정위원회

■ 모두발언

그 동안 노사관계가 아주 복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간의 대화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걱정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도 노사관계에 관한 확고한 정책 방향을 빨리 좀 내놓으라는 압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전체적인 노사정위원회가 전체적인 노사정간의 합의는 추동해 나가진 못했지만 부분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갈등 현안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합의를 이끌어 내고 조정과정을 마련함으로써 노사관계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마 또 부문 부문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노사관계 새로운 질서를 위해서 그동안에 노동부 장관의 위임에 의해서 구성된 노사관계 선진화 기획위원회에서 준비한 안을 보고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자리에서도 깊이 있게 토론해 주시고 앞으로 많은 토론을 거쳐 가면서 국민들이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하고 또 신뢰할만한 노사정 관계 흐름이 안정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마무리 발언

법의 권위에는 승복이 필요합니다. 노동운동은 국민적 명분을 확보해야 합니다.

노사정위원회가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의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 중간 보고서를 토론의제로 채택함에 따라 이제 본격적으로 어려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논의가 복잡하고 힘들겠지만 이 정도의 출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오늘 참석했습니다. 마음과 역량을 모아 결론을 내주십시오

지금은 제국주의 침략자나 독재체제와 싸우는 시대가 아닙니다.

서로 이유 있는 주장과 이해관계를 놓고 충돌을 조정하는 데 옛날처럼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은 극복해야 합니다. 노사정위가 제대로만 되면 가장 성공적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을 기울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논의할 때 ‘된다’고 생각하고 되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되겠나’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 풀어갑니다.

‘적당하게 주고받기 식은 안 된다’는 의견이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주고 받기’가 필요한 측면도 있습니다.

서로 갈등 때문에 합의가 안 될 때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글로벌스탠더드를 얘기할 수 있지만 서로 합의해서 ‘줄 수 있는 것은 주자’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법과 원칙’을 많이 얘기하지만 서로 있는 법에 대해서도, 있어야 할 법에 대해서도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법의 권위에는 승복이 필요합니다.

‘법과 원칙’과 ‘대화와 타협’은 정부가 가진 두 가지 수단입니다. ‘대화와 타협’을 타박해 ‘법과 원칙’만 가지게 되면 이는 국정이 아니고 전쟁입니다.

‘대화와 타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래도 안 될 때 ‘법과 원칙’을 쓰고 이에 저항하면 ‘우리에게 남은 것이 이것뿐이다’라고 말할 때 비로소 법이 ‘먹히는 법’이 됩니다.

저는 따뜻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요즘도 노동자편이고 싶습니다. 명분만 있으면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금의 노동운동은 국민적 명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이 점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선봉에 있는 노동조직들이 중소기업 노동자들이나 비정규직의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서 이들의 마음까지 하나로 아울러 같이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파업부터 시작해 놓고 협박하듯이 협상하는 것이 방법인가 저 스스로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꾸준히 대화하고 설득해 나갈 것입니다.